

## “의료진 헌신에 감사…병원 발전·연구 보탬 되길”

박상건 호남대 이사장, 전남대병원에 7000만원 기탁  
모친 고 이화성 박사 인연…지역 거점 병원 역할 바람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박상건 학교법인 성인학원(호남대학교) 이사장이 발전 후원금 7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성인학원 가족이 전남대병원을 위해 쾌적한 누적 후원금은 총 1억원에 달하게 됐다.

성인학원 가족과 전남대병원 발전후원 회의 인연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모친인 고 이화성 박사의 이름으로 병원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하며 생명 존중과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연말 부친인 고 박기인 성

인학원 설립자 겸 명예 이사장이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 당시 정성 어린 진료를 펼친 의료진과 병원 측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박 이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기탁하게 됐다.

박상건 이사장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 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 경영과 교육 행정을 이어오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주)씨아이하우징과 (주)에스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대학법인 협의회 이사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범인의 설

립 정신을 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며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상건 이사장은 “부모님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부친께서 전남대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역 거점 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이번 후원금이 의료진의 연구와 병원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성인학원 가족의 고귀한 나눔은 전남대병원 모든 구성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준다”며 “기탁한 소중한 후원금은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상건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7000만원을 기탁했다.

## 신안군, 7개 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하나로마트 기본소득 사용 허용  
섬주민 생활편의·지역환원 강화

신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섬·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환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낙도 이동마트·이동장터



신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운영·생필품·마트 물품·유류·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차량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환원 기능을 제

도와 연계해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는 지역 내 자체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기정)을 조성하고, 농협이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기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진각 신안군기획예산과장은 “기본소

득은 지금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일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농협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신세계안과, ‘카시아2’  
안구 광학 단층 촬영기 도입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장)는 렌즈삽입술(ICL)과 백내장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첨단 전안부 OCT(안구 광학 단층 촬영기) 장비인 ‘카시아 2(CASIA 2)’를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시아 2는 안구 전면부를 3차원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고해상도 측정 장비다.

대학병원과 국내 일부 안과에서만 운용 중인 이 장비는 특히 렌즈가 삽입될 눈 속 공간을 360도 전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렌즈삽입술에 최적화된 장비로 평가받는다.

카시아 2의 핵심은 초당 5만0000 A-scans의 초고속 스캐닝 기술이다. 단 0.3초 만에 각각 전방부터 수정체 후방까지 최대 13mm 깊이를 활용해 안구 내부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시아 2는 렌즈삽입 수술 전 절차한 공간 측정뿐만 아니라, 수술 후 렌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수술의 완성도와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아울러 백내장과 녹내장, 각막 질환, ICL 수술 등 다양한 안질환 진단과 수술 계획에도 사용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초록우산 광주본부 첫 ‘부자 그린노블클럽’ 탄생

父 이두석·子 이영창 바른안과의원 원장 2억원 후원



21일 1억원을 후원한 이영창 바른안과의원 대표원장(오른쪽)이 번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공연·전시 콘텐츠 교류 활성화 힘 모으다

ACC재단-김해시 협약 체결

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오는 4월 개관하는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의 실감 전시실과 야외 미디어월에 ACC 우수 미디어아트 작품을 유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기관간 협력 체계를 통해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상생을 위해 실



질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상생을 위해 실

기자 looks@gwangnam.co.kr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원쪽 다섯번째)는 미국 라스베이스 CES 2026 행사장에서 (주)인지인증(AI) 기반 연구·교육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목포대, 인지솔루션과 AI·데이터 기반 MOU 체결

인재양성·지역 산업 연계 실증·사업화 협력 등 추진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스 CES 2026 행사장(베네시안 엑스포 졸A)에서 (주)인지솔루션과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교육 및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서우종 인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해 심현식 기획처장, 김성환 산학협력처장, 정민아 정보전산원장, 이영호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참석해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산업 기술 공동연구 △현장 중심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실증·사업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농수산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실증 과제를 중심으로 협

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 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농수산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실증 과제를 중심으로 협

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 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농수산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실증 과제를 중심으로 협

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 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과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양식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해 질병 예측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글로벌 전시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철 총장은 “이번 협약과 CES 전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AI 혁신